



추억과 낭만의 공간 압록유원지

압록유원지는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지점에 조성된 자연발생 유원지로 여름이면 가족단위 피서객이 즐겨찾는 관광명소이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한 기점인 이곳은 3만여평의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있는 한여름 피서지로 널리 알려진 자연유원지로 여름에는 모기가 없어 가족단위 캠핑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반월교와 철교가 나란히 강을 가로질러 놓여있어 운치가 뛰어나다. 특히, 보성강 하류의 유명 낚시터가 산재해 있어 강태공들에게는 인기가 높다. 강변에는 압록의 별미인 참계탕, 은어회, 매운탕을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점이 즐비해 있어 또다른 즐거움을 준다.

주소 :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여행도우미

또한 이곳 압록유원지에는 「모기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강감찬 장군이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하다 이 곳 압록유원지에서 노숙을 하였는데

극성스런 모기 때문에 어머니가 잠을 청하지 못하자, 강감찬장군이 고함을 질러 모기의 입을 봉하였다고 한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아니면 섬진강의 시원한 강줄기 때문인지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에 모기가 별로 없다고 한다.



수영을 비롯해서, 레저보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카누, 카약 그리고 래프팅까지 강은 다양한 수상 레포츠 공간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가장 맑은 청정 1급수 섬진강은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물살이 세고 급류가 많아 잦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압록유원지 제한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상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섬진강에서 래프팅은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레포츠다.



섬진강 래프팅

- 위치 :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466
- 연락처
 - 곡성군청소년양영장 래프팅 061-362-4186
 - 섬진강곡성래프팅 061-363-8778
 - 섬진강기차래프팅 061-363-7879
- 구간거리 : 5km (소요기간 1시간 30분 ~ 2시간)



COPYRIGHT © GOKSEONG-GUN. ALL RIGHTS RESERVED.

Web Contents

